2024학년도 2학기 문헌연구보고서

(북한의 마약 문제와 국제적 대응 방안)

이름	유한준
전공	AI빅데이터융합경영학과
학번	20242863

북한의 마약 문제와 국제적 대응 방안

AI빅데이터융합경영학과 20242863 유한준

목차

I. 서론

II. 북한의 마약 문제 현황과 원인

1. 북한 내 마약 생산 및 유통 현황
2. 마약과 북한 체제의 관계
3. 생존을 위한 마약: 북한 마약 사용의 실태와 원인

III. 북한의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1. 북한 내부적 접근: 마약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 구축
2. 국제사회의 협력 및 원조
3. 탈북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

V.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오늘날 북한 주민들에게 마약 사용은 특별한 일이 아닌 일상적 행위로 자리 잡았다. 북한은 1970년대 이후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국가차원에서 마약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이를 기점으로 북한 주민들의 마약 사용이 점점 증가하여 현재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인해 진통제나 항생제와 같은 기본적인 의약품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통증 완화를

위해 아편과 필로폰과 같은 마약을 대체제로 사용하며,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절박한 현실에서 마약은 고통과 피로를 잊게 해주는 현실 도피의 수단이자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북한의 마약 문제는 단순히 북한 내부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북한 마약 문제가 현 시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마약 밀매가 확대될 경우,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동북아시아 전체에 위협이 된다. 실제로 국내에 유입되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중 약 50%가 북한산으로 추정된다.[1] 둘째, 인권적 측면에서 북한 주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마약의 생산과 거래, 운송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마약 중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마약 중독은 개개인에게 신체 기능 손상과 정신적 황폐화, 더 나아가 가정의 붕괴를 가져온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마약 문제가 지속된다면, 통일 전후 과정에서 마약 중독과 불법 유통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이는 통일 후 사회적 혼란과 범죄 증가로 이어져 안정된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마디로 북한의 마약 문제에 대한 연구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고, 북한 주민들의 기본 권리를 신장하며,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안정적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북한의 마약 문제에 관해 조사하고, 북한에서 생산된 마약이 국제적으로 유통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연대가 마약 문제 해결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북한의 마약 문제 현황과 원인

1. 북한 내 마약 생산 및 유통 현황

북한의 마약 생산은 1970년대를 기점으로 김일성의 지시와 외화를 벌기 위한 목적 때문에 시작되었다. 초반에는 아편 재배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는데, 당시 북한 정권은 아편을 약용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재배를 장려했으며, 이는 국가 통제하에 이루어졌다.[2]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경제난이 본격화되면서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필로폰(메스암페타민)[3] 생산이 본격화되었다. 북한은 합성 마약을 생산하기 위해 일부 화학 공장과 시설을 재구

---

[1] 양옥경 外(2018.), 『북한주민의 마약 사용 및 중독』,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35쪽.

[2] 이원종·오영달(2023), 『평화학연구 제24권 제4호』, 한국평화연구학회, 47, 59쪽.

[3] 매우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서 각성작용을 일으키는 합성 화합물질이다. 투여 시 졸음과 피로감이 사라지며, 육체적 활동이 증가되고, 쾌감이나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내성과 심각한 의존성이 생기며, 중단 시 금단증상이 유발되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마약류로 분류되어 법적으로 강력히 규제되는 약물이다.(출처 : 약학정보원『약물백과』)

축했고, 이 과정에서 기술적 노하우를 활용하여 고순도의 필로폰을 대량 생산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주요 생산 지역은 함경북도와 양강도로, 북중 국경과의 근접성이 유통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북한산 필로폰은 다른 국가에 비해 30배가량 저렴한 가격에 유통되고, 일반적인 필로폰의 순도가 40~50%인데 비해 북한의 필로폰은 순도 99%를 자랑한다.[4] 이러한 북한산 마약에 대한 선호도와 수요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으며, 자연스럽게 전세계로 유통된다.

북한산 마약의 유통 경로는 먼저 북한과 중국 국경을 통하여 중국의 범죄 조직에게 밀수된 뒤, 일본, 동남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로 확산된다. -일본의 야쿠자와 중국의 삼합회는 북한산 마약의 주요 거래 파트너로 알려져 있다.[5]- 1999년 일본에서 검거된 북한산 필로폰 100kg 사건[6]은 북한 마약이 조직범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다. 또한 북한산 마약은 북·중 접경지역을 통해 중국 마약 암거래 시장을 거쳐 한국으로도 유입되는데[7], 국내에서 유통되는 필로폰의 최소 30~40%는 북한산으로 추정되고 있다.[8]

국제사회는 이러한 범죄 네트워크가 마약뿐만 아니라 불법 무기, 인신매매 등 다른 범죄 활동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9]

---

2. 마약과 북한 체제의 관계

북한에서 마약은 단순히 외화벌이를 위한 경제적 수단을 넘어 체제 유지의 필수적 요소로 자리잡았다. 마약 생산과 유통을 통해 확보된 외화는 북한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북제재로 인해 합법적인 외화 획득이 어려운 상황에서 마약은 군사비용, 엘리트계층의 생활유지, 체제 선전뿐 아니라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의 주요 원천이 된다. 북한은 연간 아편 40여톤과 필로폰

---

[4] 손도희(2024. 3. 15.),「북한 정권이 주도하는 마약 산업, 진실은?」, 통일부 공식 블로그, https://m.blog.naver.com/gounikorea/22338402, (2024.11.19.).

[5] 신의기(2004.12.29.),『마약류 규제를 위한 국제협력체제 구축방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52쪽.

[6] 신의기(2004.12.29.),『마약류 규제를 위한 국제협력체제 구축방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72쪽

[7] 신준영(1996.12.),「북한의 범죄 부정부패 밀수 위폐제조 마약밀매설의 진상」,월간말, 74-75쪽

[8] 주성하(2019.05.25.),「마약에 빠진 북한… "동네마다 얼음 파는 집"」,《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90525/95690028/1, (2024.11.29.).

[9] UNODC 보고서(2020), <World Drug Report 2020>.

등 합성 마약 3000여kg을 생산·판매해 매년 2억달러, 즉 우리돈으로 약 2800억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10]

"북한에서 조직적으로 마약을 생산·밀매하며 총괄하는 부서는 조선노동당 39호실로 알려져 있는데, 39호실은 각종 외화벌이를 통해 북한 지도자의 통치자금을 마련하는 조직이다. 보위국과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등 인민군도 마약을 제조하여 밀매하고 있다." *출처: 이원종·오영달(2023),『평화학연구 제24권 제4호』, 한국평화연구학회, 48쪽.

또한, 마약은 체제 내부적으로 주민 통제를 강화하는 도구로도 사용된다. 마약 사용을 암묵적으로 방조하거나, 심지어 장려함으로써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불만을 잠시 잊게 하고,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수단을 제공한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마약 유통이 본격화된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다. 탈북민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배급하지 않더라도 마약 사용이 묵인되는 경우가 많았다. 주민들은 극심한 노동 강도와 피로를 극복하기 위해 필로폰을 사용하며, 이로 인해 체제에 대한 반발심이 무뎌지고 따라서 체제 유지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분석도 있다.

---

3. 생존을 위한 마약: 북한 마약 사용의 실태와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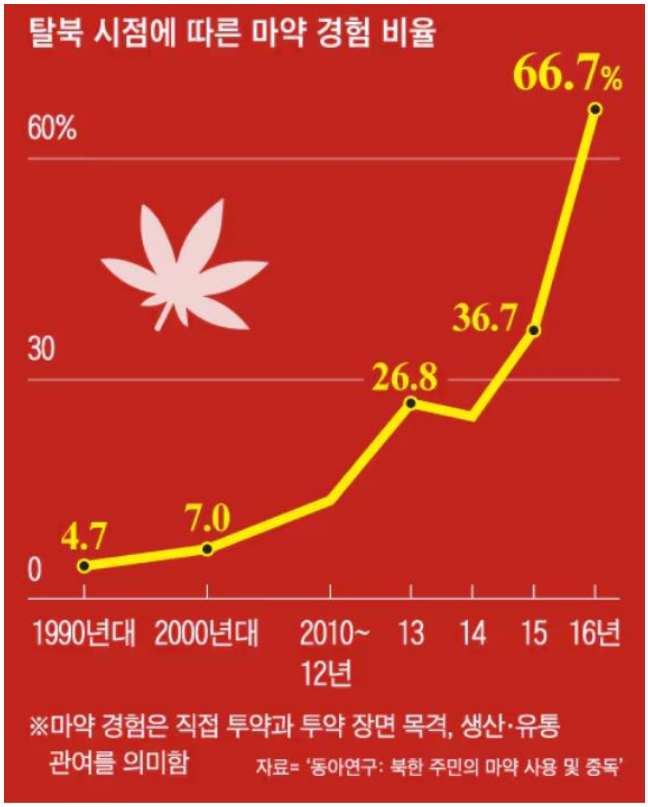
북한에서의 마약 사용은 특정 계층이나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고,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탈북민 1천400여 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북한 내 마약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북한 주민의 30% 이상이 필로폰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11]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 내에 있는 탈북민들 중에서 마약사용의 직접 경험자는 1990년대 4.7%에 불과했으나, 그 비율이 점점 빠른 폭으로 증가하면서 2016년 기준 66.7%에 다다랐다고 한다.[12]

---

[10] 양성관(2024.04.30), 「양강도는 아편, 함경도는 필로폰... 北 최고 수출품은 核이 아닌 마약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2024/04/30/OADY6Q7LQBDBBDCSIOPGEJDNX4/, 《조선일보》,(2024.12.02.).

[11] 김효정, (2016.12.01.), 「"北주민 마약중독 심각...최소 30% 소비 추정·어린이까지 남용"」,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61201088151014, (2024.11.30).

[12] 양옥경 外(2018.),『북한주민의 마약 사용 및 중독』,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44쪽.



북한에서 이렇게 마약이 성행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열악한 의료 환경과 사회적 인프라 부족을 언급하고 싶다.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의료 시스템이 심각하게 붕괴되었으며, 이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접근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약국이나 병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의약품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통증이나 질병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13]

특히, 진통제와 같은 기본적인 의약품을 구할 수 없는 주민들은 아편이나 필로폰과 같은 마약을 치료제의 대체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 대부분의 주민들은 배탈이 나거나 아플 때 아편을 비상약처럼 복용하고, 두통이나 불면증, 설사 등을 치료하기 위한 상비약으로 가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어린아이가 아픈데도 약을 구하지 못하여 아편을 젖가슴에 바르고 젖을 아이에게 물렸더니 나았다고 하였다. 이들은 지병에 의한 통증을 참기 위한 진통제로, 아플 때 위안을 얻거나 졸음을 쫓기 위한 용도로 아편을 비롯한 메스암페타민 등, 마약류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에 들어와 중국 및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구입하여 북한이탈주민 모임 장소에서 판매와 투약을 하기도 한다[14]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마약은 피로 회복제나 통증 완화제로도 사용되었으며, 특히 노동 강

---

[13] 이혜경(2008),『북한 보건의료체계의 파행화와 변화에 대한 연구 : 1990년대 후반기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쪽

[14] 이정숙(2024),『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실태와 대책: 마약류 예방교육을 중심으로』, 교정담론, 175쪽

도가 높은 환경에서 자주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하루 12시간 이상 강제 노동을 해야 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주민들은 작업 중 피로와 통증을 견디기 위해 필로폰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마약은 단순한 오락물이나 금지약물이 아닌 생존을 위한 도구로 자리 잡았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이미 마약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이를 알고도 마약을 끊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15]

III. 북한의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1. 북한 내부적 접근: 마약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 구축

첫번째로, 북한 당국은 마약 중독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북한 주민들은 마약을 구하기 위해 가정의 재산은 물론, 국가 재산까지도 횡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정 붕괴, 범죄 증가, 사회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마약이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주범이라는 인식하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한 교육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 당국도 최근 들어 마약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월 북한은 북한에서 마약이 유행하게 된 것이 전부 미국과 남한 간첩의 소행이고, "마약 범죄와의 투쟁은 곧 공화국을 질식시키려는 원수들과의 대결전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계급투쟁과 같다"[16]고 강력하게 말하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실제로 북한 법에서 마약 관련 처벌은 꽤 엄격한 편이다. 현행 형법 208조(마약 밀수, 거래죄), 206조(비법아편재배 마약제조죄)에서는 최고 형량을 사형까지로 규정하고 있을 정도다. [17]하지만 이런 조치와는 별개로, 북한 내부에서는 여전히 마약 생산과 유통이 성행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북한 국경경비대 병사들이 뇌물을 받고 마약밀거래를 눈감아주는 등[18] 단속 자체가 허술하다는 점, 북한 당국이 마약 단속과 별개로 외화벌이를 위한 국가 주도의 마약 생산과 유통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북한 정권이 극도로 부패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이기에 해결하기 어렵다.

---

[15]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2021.10.31.),「북한인권: 일상이 된 마약 – 북한의 마약 문제」, https://amnesty.or.kr/42977/, (2024.12.01.).

[16] 정태주(2024.01.24.),「마약 범죄에 "적들의 모략 탓"...외부로 원인 돌려 내부 단속」, <DAILY NK>, https://www.dailynk.com/20240124-1/, (2024.12.13.)

[17] 김경윤(2021.07.02.),「북한 '마약과의 전쟁' 나서나...마약범죄방지법 새로 제정」,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2052600504, (2024.12.13.).

[18] 김귀수(2010.12.28.),「北 국경경비대, 마약밀매·인신매매 가담」,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217238, (2024.12.13.).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방법이 존재한다면, 가장 먼저 의료적인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 지역 곳곳에 진통제나 항생제 등의 가장 기초적인 의약품만이라도 공급된다면 약품 대용으로 쓰이는 마약의 수는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북한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주민들이 기본적인 생존조차 힘겨운 상황에서, 의약품을 보급한다는 것이 현실과 괴리가 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원조가 필요하다.

---

2. 국제사회의 협력 및 원조

열악한 의료 환경과 의약품 부족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인도적 지원 단체는 북한 주민들이 마약을 진통제나 치료제의 대체물로 사용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의약품과 의료 소모품을 공급해야 한다.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보건기구(WHO)는 이전부터 북한에 백신, 주사기, 필수 의약품을 지원해왔다. 2024년에도 60만 명 이상의 어린이와 산모를 위한 의료 지원이 이루어졌다.[19] 이런 지원을 진통제를 비롯한 필수 의약품으로 확대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마약 대신 의약품 사용을 독려한다면, 의약적 목적의 마약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북한산 마약이 국내외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와 단속이 필수적인데, 특히 북한 마약의 주요 유통 경로에 위치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긴밀한 협력과 국경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 코로나 19 발생 이후 북한과 중국 국경이 봉쇄되고 나서 중국의 마약 범죄 적발 건수가 78% 급감했다는 통계[20]만 봐도, 국경 감시 강화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산 마약이 다른 국가로 유입되었을 때 이를 신속히 감지하고 차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국은 마약 밀매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마약 유통에 연루된 조직에 대해 국제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북한산 마약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제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

3. 탈북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

마약을 경험한 탈북민들은 한국에 입국한 후에도 마약 밀매나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범죄를 저지른 탈북민

---

[19] 현혜란(2024.08.02.),「유니세프, 북한에 올해 상반기 22억원 상당 의료품 지원」,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802021100504?, (2024.12.13.).

[20] 박종국(2023.06.26),「'세계 마약공장' 北 국경봉쇄 효과?…中 마약범죄 10년만에 최소」,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6074700097, (2024.12.01.).

은 812명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중 마약관련 범인이 264명으로 전체의 32.5%에 해당된다고 한다[21].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문 치료기관과 재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탈북자를 수용할 시 마약 관련 검사를 철저히 실행해야 한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교육 기관인 하나원의 정규교육 400시간 중 마약류 관련 교육은 5시간으로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가 실행되지 않고 있다. [22]따라서, 북한이탈주민 교육기관은 마약류 관련 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설문조사, 소변·모발·혈액 검사, 상담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IV. 결론

북한의 마약 문제는 단순히 북한 내부의 문제를 넘어 국제 안보와 인권, 그리고 통일 후의 사회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초국가적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서의 마약 생산 및 유통의 역사적 배경, 현재 북한 내부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주민들의 마약 사용과 그 원인, 북한산 마약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면서 야기되는 위협, 그리고 북한 마약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의 마약 생산 및 유통이 단순한 범죄 행위가 아닌, 체제 유지와 주민 생존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관점 하에 북한 마약 문제의 원인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북한의 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북한, 국제사회, 한국의 측면에서 각각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정보 접근의 제한성으로 인해 마약 문제의 전반적인 실태와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북한과 밀접하게 연결된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 방안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한국 언론과 공론장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지는 북한 마약 문제를 더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한국 국민의 보호, 그리고 한반도의 안정적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의 마약 문제는 반드시 주목받아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연구와 정책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

[21] 림일(2024.10.15.), 「탈북민들 마약류 사범 비율 높아..."북한에서의 습관 못버린 것"」, <통일신문>, https://www.unityinfo.co.kr/38724, (2024.12.13.)

[22] 박상우(2024.02.20.),「탈북민 수감자 33% 마약사범...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GOOD NEWS>,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897, (2024.12.13.)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북한 마약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더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국제사회의 평화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V. 참고문헌

김경윤(2021.07.02.),「북한 '마약과의 전쟁' 나서나…마약범죄방지법 새로 제정」,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2052600504, (2024.12.13.).

김귀수(2010.12.28.),「北 국경경비대, 마약밀매·인신매매 가담」,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217238, (2024.12.13.).

김효정, (2016.12.01.),「"北주민 마약중독 심각…최소 30% 소비 추정·어린이까지 남용"」,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61201088151014, (2024.11.30).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2021.10.31.),「북한인권: 일상이 된 마약 – 북한의 마약 문제」, https://amnesty.or.kr/42977/, (2024.12.01.).

림일(2024.10.15.),「탈북민들 마약류 사범 비율 높아…"북한에서의 습관 못버린 것"」, <통일신문>, https://www.unityinfo.co.kr/38724, (2024.12.13.).

박상우(2024.02.20.),「탈북민 수감자 33% 마약사범…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GOOD NEWS>,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897, (2024.12.13.)

박종국(2023.06.26),「'세계 마약공장' 北 국경봉쇄 효과?…中 마약범죄 10년만에 최소」,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6074700097, (2024.12.01.).

손도희(2024. 3. 15.),「북한 정권이 주도하는 마약 산업, 진실은?」, 통일부 공식 블로그, https://m.blog.naver.com/gounikorea/22338402, (2024.11.19.).

신의기(2004.12.29.),『마약류 규제를 위한 국제협력체제 구축방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52쪽.

신의기(2004.12.29.),『마약류 규제를 위한 국제협력체제 구축방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72쪽.

신준영(1996.12.),「북한의 범죄 부정부패 밀수 위폐제조 마약밀매설의 진상」,월간말, 74-75쪽.

약학정보원『약물백과』.

양성관(2024.04.30),「양강도는 아편, 함경도는 필로폰… 北 최고 수출품은 核이 아닌 마약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2024/04/30/OADY6Q7LQBDBBDCSIOPGEJDNX4/,《조선일

보》,(2024.12.02.).

양옥경 外(2018.),『북한주민의 마약 사용 및 중독』,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35쪽.

양옥경 外(2018.),『북한주민의 마약 사용 및 중독』,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44쪽.

이원종·오영달(2023),『평화학연구 제24권 제4호』, 한국평화연구학회, 47, 59쪽.

이정숙(2024),『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실태와 대책: 마약류 예방교육을 중심으로』, 교정담론, 175쪽.

이혜경(2008),『북한 보건의료체계의 파행화와 변화에 대한 연구 : 1990년대 후반기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쪽.

정태주(2024.01.24.),「마약 범죄에 "적들의 모략 탓"...외부로 원인 돌려 내부 단속」, <DAILY NK>, https://www.dailynk.com/20240124-1/, (2024.12.13.).

주성하(2019.05.25.),「마약에 빠진 북한... "동네마다 얼음 파는 집"」,《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90525/95690028/1, (2024.11.29.).

현혜란(2024.08.02.),「유니세프, 북한에 올해 상반기 22억원 상당 의료품 지원」,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802021100504?, (2024.12.13.).

UNODC 보고서(2020), <World Drug Report 2020>.